

투데이 칼럼

코스피 5000 시대, 대한민국에 비치는 서광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마침내 새로운 이정표 앞에 섰다. 지난달 22일 장중에 코스피 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축적된 불신과 저평가의 굴레를 벗어날려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의지이자, 미래를 향한 집단적 신뢰의 표현이라는 생각이다.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1500포인트와 2500포인트 안팎에서 쫘다쫘다 움직임을 보지 못했고, 환율의 고통을 겪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의 주식시장으로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성적표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 마치 숙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녔다. 남북 간의 긴장, 번듯한 자원 하나 없이 원자재 수입을 통해 가공한 물건을 수출에 의존하는 천수답 같은 경제,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환경,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를 짓눌러 왔다. 하지만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지난달 22일의 코스피 5000 돌파는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본다. 최근의 상승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 주도하는 HBM 메모리는 세계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현대·기아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 지난 2026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선보인 로봇 기술은 전 세계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 로봇 기술력이 미국과 중국을 앞지른 것이다. 기술과 산업, 그리고 정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시장은 정배열로 바로 응답한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경제를 바라보는 국가의 태도 역시 분명해졌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던 불확실성 대신, 예측할 수 있는 정책과 분명한 방향성이 제시되었고, 그 신뢰가 투자 심리로 이어졌다. 주식시장은 결국 '기대의 집합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커질수록 지수는 올라간다. 5,000이라는 숫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것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지표라는 점이다. 주식시장이 제 가치를 회복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수익률도 빠르게 개선된다. 이는 곧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빠르게 고령화로 접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연금 수익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다. 요즘은 시니어버스 안에서도 주식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할머니가 딸에게 삼성전자 주가를 묻고,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이를 '광풍'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이 오히려 건강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경제가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식 투자가 언제나 달콤한 결실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쓰라린 손실을 경험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는 점이다. 단기적인 유희보다 장기적인 가치, 소문보다 기업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과정 역시 시장 성숙의 일부다. 코스피 500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성과를 일시적 축제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 나는 믿고 싶다. 대한민국 경제가 더 투명해지고, 기업은 더 책임감을 가지며, 국가는 시장과 국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쓰지 않게 될 것이다. 대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회자될 날이 올 것이다. 비록 지금 당장 모든 국민의 주식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는 않았을지라도, 코스피 5000 돌파는 분명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신호다. 대한민국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다음 세대에 물려줄 미래가 아직 충분히 밝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시대,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이다.

기고문

화재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경고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특히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다.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대부분 열감지기가 설치돼 있거나, 세대 내 경보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는 곳도 많다. 불이 발생해도 연기가 충분히 차오른 뒤에야 감지되다 보니, 잠든 사이 화재를 인지하지 못해 대피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화재 사망 사고는 태운이 늦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 발생한다. 현재 국내 1387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1000곳이 넘는다. 특히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아파트는 전 층 스프링클러가 없는 구조가 대부분이며, 노후화된 전기배선은 과열이나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더욱 키운다. 이런 환경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바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열감지기보다 평균 2분 이상 빠르게 화재를 인지하며, 화재 발생 시

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하다. 대당 1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재 사망률을 2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규모 공사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스프링클러와 달리,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 안전 장치'다.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살아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준다. 화재 안전은 거창한 설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경보를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



임 옥 민
원주소방서 예방안전팀 소방장

지하철 소리와 맞먹는 85dB 이상의 경보음을 울려 잠든 사람도 즉시 깨울 수 있다. 배선 공사가 필요 없고, 나사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무엇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하다. 대당 1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재 사망률을 20% 이상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규모 공사나 유지관리가 필요한 스프링클러와 달리,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 안전 장치'다.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살아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준다. 화재 안전은 거창한 설비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경보를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 거주하는 가정이라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할 수 있어 누구나 손쉽게 사

사설

도서관에 깔려진 역사 왜곡 도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교육한 혐의를 받는 김병현 씨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온 자리에 서 자신의 책을 홍보했다. 그런데 당연과 궤변으로 일본군 성범죄를 두둔한 이 책이 전국 공공도서관 40여 곳에 깔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교육하는 시위를 해온 김병현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와서도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책은 "일본군이 강제동원한 죄 없다"며 일본 극우식 논리를 펴는 책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 담화'나 강제동원을 명백히 밝힌 유엔 보고서도 부정한다. 그런데 이 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정독, 종로, 서대문도서관과 경북 안동시립

린이도서관, 전남 여수시립돌산도서관 등 모두 44곳이다. 역사를 왜곡하며 일본군 성범죄를 두둔한 책을 세금으로 구매한 셈이다. 도서관에 물어보니 이용자가 신청하면 시종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김 씨 관련 인물이나 특정단체가 신청했는지는 알 길이 없다고 한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편향된 역사관을 반영하거나 공공도서관에 부적합하면 제외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 금생도서관, 강원 강릉교육문화관 등 공공도서관 13곳은 일단 도서 검색이 안 되도록 조치했다. 김 씨가 계속 비슷한 책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일본군 성범죄를 정당화하는 책이 공공도서관에 또 깔릴 지 모른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의 논의를 시작했다. 현재는 무광 같은 온라인 사업자인 새벽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반발할 수 있어 고심 중이다. 당정의 논의는 유통 시장이 달라졌던 현실에서 시작됐다. 2012년 심야 영업 제한 도입 때 대형마트가 '유통 공룡'이었지만, 지금은 '쿠방'이 이들을 넘어섰다. 당·정·청이 모인 자리, 정부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일부 해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골목 상권을 지키려 했지만 이익은 '쿠방' 등이 보는 상황이 고려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이른바 '탈광'의 대안이 없다는 여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시장 경쟁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이라며 당장 추진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실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혐의 하루 만에, 관련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선 "마트가 새벽 배송한다고 쿠방 고객이 줄겠느냐",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다. 당정은 새벽 배송에 소상공인 상품을 포함하는 것 같은 상생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 당·정·청이 마트 새벽 배송 허용을 공식화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예상보다 강한 반발이 변수로 떠올랐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